유가연동제, 그 이후①

시기 잘 맞아 떨어진 유가연동제

趙美淑
〈월간 에너지다이제스트 취재부차장〉

무난히 치른 첫관문

지난 2월 15일 0시 국제가와 환율에 따라 국내 유가가 변했다.

유가연동제는 '94년 유류업계의 가장 큰 변화이며, 정부의 강력한 유가규제에 국제화·개방화의 바람이 가미된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끌었다.

석유산업도 경쟁화시대의 대열에 진입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들도 유가연동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가연동제 실시 첫날, 전국의 5천여개의 주유소들은 일제히 주유기에 새겨진 요금을 새롭게 바꾸고, 가격표시판도 고쳐 달았다.

무연휘발유 1ℓ당 620원에서 608원으로 인하, 등유는 1ℓ당 254원에서 237원으로 인하, 경유 1ℓ당 218원에서 216원으로 인하, *B-C*유는 98원47전에서 90원50전으로 인하 되었다. 이로써 무연휘발유는 1.9% 인하율, 등유는 6.69% 인하율, 경유는 0.92% 인하율을 보였다. 〈표-1 참고〉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보이다 못해 배럴당 13달러 이하로 떨어져 바닥세를 드러내 보였고 환율도 810원대로 별다른 변동이 없어 석유류세 인상요인을 모두 흡수하고서도 평균 4%의 인하율을 보여 줄 수 있었다.

어느 정유사 소매이사는 유가연동제 첫 관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0~13%의 큰 폭으로 국내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소폭 인하되어 시장에 유가연동제실시로 인한 혼란은 없었습니다』

애당초 우려했던 수급차질이나 매점매석의 경우는 유가가 소폭 인하되는 바람에 없었다는 것이다. 비교적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유가가 소폭 인하 되었음에도 연동제실시 전부터 시장에는 덤핑물건이 쏟아져 나왔으며, 정유사는 재고가 늘어나 이를 소화시키기에 어려움이 따랐

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유가연동제하에서 큰 폭으로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석유시장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연동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염려하기도 했다.

유가연동제가 무난히 첫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낮은 국제원유가의 영향과 정부의 연동제 시기선정이 적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업계는 『앞으로 국제가가 더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당분간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유가연동제입니까? 세금연동제 입니까? 『유가연동제는 어디까지나 국제원유가와 환율 2가지에 의해서 국내 유류가격이 변동 되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누차 강조했었다. 누구든 그렇게만 알고 있었을 게다. 그러나 연동제 실시 며칠 전 「유류특소세 재인상」의 변수가 나타나고 말았다. 이 변수는 업계를 당혹하게 했고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첫 출발한 유가 연동제에 흠집을 만들었다.

국제유가는 13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환율도 변동이 없어 모처럼 유가연동제 실시의 최적기 단계로 평가 받고 있던 터에 날벼락처럼 떨어진 세금인상은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경제부처의 차관회의에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올해 교통세와 세수가 6천억원가량 결손이라는 것. 이 결손분을 유가세수를 높여서 막아 보자는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연동제에 정부의 강력한 유가규제를 다시한번 발휘한 셈이 되고 말았다. 순수한 연동제이기보다는 정부가 다시 손을 댄 연동제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대체 이것이 세금연동제지 어찌 유가연동제입니까?』라고 몰아부쳤다.

유가연동제는 '94년 유류업계의 가장 큰 변화이며, 정부의 강력한 유가규제에 국제화·개방화의 바람이 가미된 작품이었다.

최근 들어 교통세수 확보를 위해 목적세로 바뀐 석유류세는 무연휘발유 1백50%에서 190%로 40%의 탄력세율을 적용시켰다. 경유는 20%에서 25%로 5%의 탄력세, 등유는 10%에서 13%로 3%의 탄력세율을 적용시켰다. 이로써 10%이상의 하락세를 보여 줄 수 있었던 유가는 4%선에서 머물고 말았다.

연동제실시 며칠전까지만 해도 세금변동없이 유가연동제가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던 업계나 소비자들은 유가인하폭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정부정책을 비판하였다.

정부부처간의 손발이 맞지 않은 「징세편의주의」니 「부처간의 이기주의」니 「조령모개정책」이라며 업계나 언론은 정책불신에 따른 강도높은 소리를 냈었다.

모처럼 정부가 강한 유가규제 정책을 완화해 보겠다는 의지로 시작된 유가연동제가 시작초기부터 좌초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정부는 유가연동제를 통해서 정부·업계·소비자들이 모두 자유자재로 변하는 유가에 적응하기 위해 일정의 훈련을 받

〈표-1〉 〈경질유제품 유가변동표〉

	전월가격	금월가격	인 하 율	특소세인상율
휘발유	620(원)	608(원)	1.9%	150%→190%
등 유	254(원)	237(원)	6.69%	10%→13%
경 유	218(원)	216(원)	0.92%	20%→25%

* 국제원유가 13$/B, 환율 810원/$ (자료 : 에너지다이제스트)

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유가연동제야말로 강력한 유가규제에서 완전한 유가자유화로 가기위한 중간다리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최선의 유가정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유가자유화란 누구나 쉽게 알고 있듯이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유가자유화는 우리나라 석유산업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정책적 변수가 강하므로 정부는 쉽게 유가정책을 시장에 맡길 수 없다고 한다. 이는 국제화 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신규참입, 수출입 자유화를 함께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석유산업의 핵심고리는 유가정책 즉 유가자유화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내의 석유산업은 아직 유가자유화를 소화해 낼 능력이 없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연동제를 통해 국제가와 같은 수준의 국내유가체제를 갖추어 국제석유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 연습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가연동 과정없이 곧바로 유가자유화를 실시했다가는 석유시장은 곧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정책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물론 이런 기우는 정부의 지나친 유가제도의 염려에서 오는 것이라고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비판하는 업계도 있다. 어쨌든 유가연동제는 오랫동안 기업을 규제하다 못해 속박으로까지 묶어 두었던 유가제도에 청색 신호를 보인 것만은 사실이다. 유가제도에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이는 곧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유가연동제가 무난히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낮은 국제원유가의 영향과 정부의 연동제 시기선정이 적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연동제 실시를 위하여

『유가연동제는 유가자유화로 가기위한 전단계로서의 훌륭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장은 석유협회 세미나에서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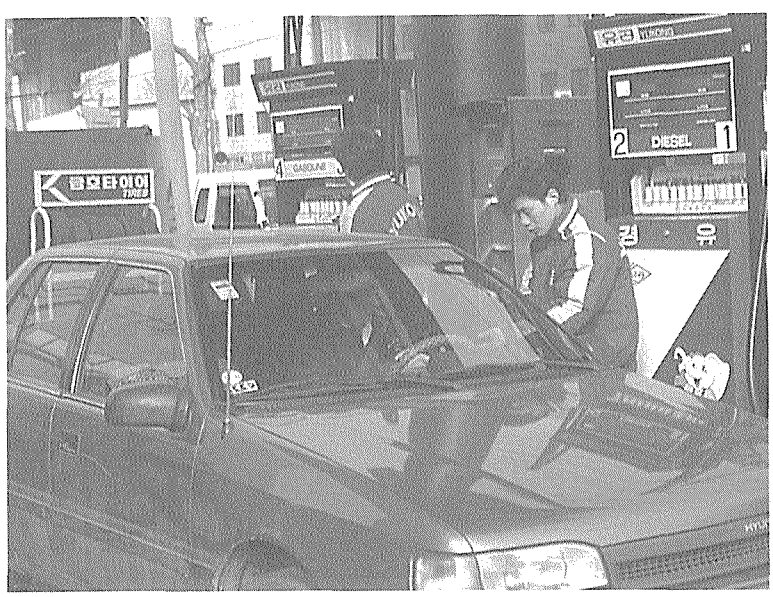
그러나 연동제가 훌륭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이 됐지만, 유가연동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수급에 이상기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의 경우처럼 석유시장에 덤핑물건이 쏟아질 수도 있고 가격이 오를 때 시장에 물건이 바닥이 나는 매점매석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유통시장은 연동제 실시가 매달 15일이라는 사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즉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인송유관 운영도 연동제 실시 전은 수송물량이 줄어들고 연동제 실시 이후 수송물량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석유류 가격변화에 따른 유통시장의 변화는 민감하고도 복잡하다.

유가연동제는 어디까지나 유가자유화로 가기 위한 방법일 뿐 목표는 아니다. 따라서 유가연동제를 효율적으로 실시운영할 때 우리의 유가제도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유가연동제는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때 더욱 의미있는, 값진 제도로 업계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통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하며 시장에서 도출될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유가연동제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착될 때 기업의 이윤규제 제도를 없애고 유가제도를 완전히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점도 짚어 두고 싶다. 정부의 역할은 최소의 규제로 시장을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가연동제 실시로 유통업계도 체질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 기업이윤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흐리게 하는 단독 플레이 보다 국제시장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공정한 유통질서가 형성될 때 유가자유화가 실시될 수 있는 것이며 국제경쟁에도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정부와 업계가 잘 합심한다면 유가연동제는 유가자유화로 가는 지름길이며 동시에 성공적인 유가제도를 가져 올 것이다.

유가연동제 실시로 유통업계도 체질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 기업이윤도 중요하지만 국제시장에 대비한 공정한 경쟁을 해야만 된다.